

여당 · 호남 시도지사 현안 해결 공조 다짐

전북도청서 예산정책협의회
전북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조성등 건의
탄소법 등 국회 통과 요청

전북도는 13일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시도지사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예결위 간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기관 수형자 대상
전북선관위, 디딤돌 연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정기관 수형자의 새로운 미래 개척을 위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인 '디딤돌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연수는 다시 사회로 돌아올 교정기관 수형자를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선거와 민주주의', '선거역사 인문학 강좌'를 통해 주권행사 및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디딤돌 연수는 지난 3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군산교도소, 정읍교도소에서 6차례 걸쳐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 8월 13일에는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약 400명 정도가 디딤돌 연수를 받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교정기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이날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방향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상황을 듣고 각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당 차원의 정리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현재 전북 경제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5대 중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5대 중점 사업은 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새만금 SOC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탄소소제법',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개정과, 2023 새만금잠비리대의 성공개최를 위해 마련된 챔버리

특별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건의했다. 이어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 신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대기오염 저감소 신설, 변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건의가 이어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서 가동중단에 이어GM군산공장의 폐쇄로 전북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북경제의 체질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알코올 중독 · 도박문제 해결에 맞손

전주시중독관리지원센터, 전북 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

전주시가 알코올 중독과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는 13일 알코올과 도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독 대상자들에게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알코올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또, 시민들의

중독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알코올과 도박 등 전주시민들의 중독 문제를 해소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준상 시 보건소장은 "최근에는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니코틴이나 인터넷 중독도 늘고 있다"며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 등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독 예방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 활동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가능성

정헌율 익산시장에 언제쯤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 동참할까? 정 시장이 투게리빙 환우를 돕기 위한 자선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다음 동참자로 익산부시장을 지낸 유기상 고창군수에 의해 지명됐기 때문이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동안 익산부시장을 역임한 뒤 지난 6.13

지방선거서 당선된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9일 고창을 고인돌유적지에서 투게리빙 환우를 돕기 위한 자선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투게리빙(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환기와 기부활성화 유도를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호 외치는 전북대 노조 13일 전북대학교 본관 입구에서 총장선출 비교안 상황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비교원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가 실시된 가운데 전북대학교 학생과 전북대학교 공무원 노조 20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美 농식품 수출요령, 제대로 알아볼까?'

도·생진원, 21일 바이어 초청 수출전략 설명회

전북도와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21일 오후2시부터 생진원 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농식품 수출기업, 수출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국 농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 전략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한국 농식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는 'SW 그린라이프' 대니 박(Danny Park) 대표를 초청해 미국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소규모 수출업체에게도 적용 예정인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의 식품예람 관리제도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을 통해 접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 장벽 대처요령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미국 현지 대형유통업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국 최대 유통점인 월마트 입점에 성공한 대니 박 대표의 성공사례와 입점 노하우 등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설명

회에 참석한 업체 제품에 대한 현장 수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식품기업들이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수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걷어내기를 희망하고, 미국 현지에서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바이어의 생생한 정보와 경험담들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도내 식품기업은 8월 20일까지 전북생물산업진흥원(문의 210-6596)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동학혁명 추모공간 들어선다

전주시, 녹두관 · 꽃동산 조성공사 착수

전주시가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장될 추모공간 조성에 착수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핵심콘텐츠인 녹두관(가칭)과 꽃동산 조성공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전주의 근대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련 유적지와 전적지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곤지산 투구봉 일대에 녹두관을 조성하여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 안치중인 동학농민

군 지도자의 유골을 모셔와 동학정신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변에는 꽃동산을 신규 조성해 추모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 홍보·교육관인 파랑새관(가칭)과 민(民)의 광장, 삼지깎러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가 실현됐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세우고 동학

의 정신이 스며든 전주정신 정립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자존감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학과 건축, 미술, 조각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진행 속도를 높여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공원을 근저의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서화동 예술촌 등과 연계해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타 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 시설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 역사문화벨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